

'학교법인 한전공대' 허가 대학 설립 실무작업 속도

교육부, 한전에 신청 6개월여 만에 허가…2022년 3월 개교 본격 착수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전공대' 허가를 한전에 공식 통보하면서 대학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20일 한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자로 학교법인 허가 통지서를 한전에 통보했다.

한전이 지난해 9월30일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에 나온 허가서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곧바로 학교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업무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학교법인 이사회를 열어 2022년 3월 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 한다. 이사회에서는 사무국 구성, 예산안 승인, 교직원 인선, 캠퍼스 창공 등 대학설립 실무를 논의하게 된다.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공과대학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



한전공대(미래) 캠퍼스 가상이미지
※ 건축설계시 변경예정

정해 추진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인근 농경지 등 80만㎡ 부지에 조성된다.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만 개설돼 대학과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대형 연구시설도 함께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 특히 한전은 지역과 함께 첨단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기 속기'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표현덕 기자



방역 소독 코로나19 완벽 차단 20일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 지역 자율방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국민이 원하는 정책 이력 공개

광주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0년도 국민신청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 관련자

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국민 참여청구의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국민신

청실명제 사업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4월21~5월20일, 7월21~8월20일, 10월21~11월20일 등 2분기부터 4분기까지다.

최영범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양도소득세
- 법인설립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고립감 긍지 범위가 압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동구, 환해진 밤거리 안심하고 다닌다

광주 동구가 안전하고 밝은 도로조명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 가로등 및 주택가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월까지 260여개의 가로·보안등에 대해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가로등은 구성로·경양로·지호로 등 3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보안등은 조선대 후문과 서남동 주변 등 원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LED조명 교체로 안전하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와 부녀자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로조명 유지 관리비와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도심 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한창

광주 서구는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등 수목 가지치기를 5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가지치기 대상 가로수는 고압선에 균접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잎이 무성해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다.

서구는 수목의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남구,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 상담실 연다

광주 남구는 주민들과 사업체 운영자에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ле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월요일마다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주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이 열린다.

법률상담에는 남구청 규정 법률 자문 및 재능 기부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에스엔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5명이 순번제로 참여한다.

이들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 7층 영상회의실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북구, 일자리 공시제 추진…1만2100명 목표

광주 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0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재정투입 사업 중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북구는 고용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과 자문을 받아 6개 분야 77개의 목표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대상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재정 사업이며, 연말까지 1만210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청사교회, 우산동에 선물꾸러미 나눔

20일 광주청사교회(목사 백운영)가 광산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간편식·과일 등이 들어있는 선물꾸러미를 맡겼다.

백운영 광주청사교회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기에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나누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다시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건강보험, 월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www.nhis.or.kr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부담금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240,833원
4분위	125,531원
3분위	79,147원
2분위	48,103원
1분위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